



## 조선인민군 대좌 김철운 선생.

김철운 선생은 1904년에 북한 길주에서 탄생하시었다. 김선생이 탄생할시 선생의 부모들은 그들의 생활경도로 보아 중등이상의 부유한 가정으로써, 호지도 몇정보 있었고, 또 적의만한 병원에 약국까지 구비되어 있었다. 나부지는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고등 상식을 소유한 의사로서 시원들의 존경을 받아오려 살았다. 가정에는 철운 선생의 위로 형 한남과, 아래로 1915년에 탄생한 너름생 허사가 있었다. 그 외에 권 가정의 존경을 받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던 바, 그들은 철운 선생을 특별히 사랑하였다. 할아버지는 자기 생전에 흥태 받은 둘째손재 철운 선생이 장가갈 것을 요구하여 철운 선생은 허는무었어 1915년, 겨우 십일세 되는 해에 동리에 타국 부유한 남선달의 집 딸 남봉숙이하고 결혼하게 되었건나, 봉숙양은 그당시 14세가 되었었다.

최윤 선생의 부모들은 아들 형제를 언제든지 잊을 시기지  
 않고 열심히 공부란 하게 하였다. 김 선생은 벌써 1923 (연어)  
 김주에서 고등학교를 다감하고 그 해로 동경으로 유학가게 되었다  
 동경에 도착한 최윤 선생은 동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  
 나 세상의 경세로 났어 탈게 되었으며, 좋은 선진적 영향으로 받  
 게 되었다. 동경 세대에 입학한 김 선생은 1924년에 드디어 법학  
 부를 졸업하게 되었으며 동경 생활의 4년 동안 김 선생은 노출산  
 태국국리사, 일본 제국국리에 대한 비외섭 작개심이 견결한  
 민족국리사가 되었다. 고항에 돌아온 김 선생은 비외의 권  
 세 증창생들은 물론 그 외에 전세 한편 청년들을 묶어 세워  
 공산 청년회 대월에 결속하면서 청년들의 모든 열기를 밝히  
 일제에 항거하여 복수를 밝히 조국으로 도록 찾는데 대한 열등  
 을 열렬히 전개하였다. 벌써 동경에서부터 꼬리표가 달려온  
 김 선생은 재일 경찰서에 노출당 하였으며, 벌써 무차  
 검거까지 당하였다. 그리고 경찰서에 동족되어 자택으로  
 시외 외출은 금지 당하였다. 이 대국 청년 운동에는 김 선생  
 이 혼자가 아니라 선생의 형도, 또 누어진 누이동생도 열성  
 적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김 선생은 이런 행태에 있어서 인  
 족 해방 운동은 선배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자  
 몇 명의 가까운 동무들은 고향땅을 떠나 중국이나, 아니면  
 노련 지역에 가서 혁명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약속  
 하게 되었다. 1929 (연어) 김 선생의 형이 김주리자 김  
 선생의 일행 5명은 노련 땅을 행하여 원종변강 불  
 타지보스도크로 떠나오게 되었으며, 14세 되는 누이  
 동생은 동리 청년 빨치산들과 함께 동간으로 행진  
 떠나고 있었다. 그 후 감옥에 잡혀 들어간 김 선생의  
 형은 옥사 하였으며, 김 선생의 많은 친구들은 역시 고향으로

떠나 대부분이 동맹으로 가게 되었다. 김선생의 부모들은 자식  
들을 다 따르고 원제는 고향땅에서 살자라기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역시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 일본 경찰들은  
집을 떠난 자식들의 복수 전략이나 취하고 있는가 하여 노인  
들을 데리고 가서 호출하고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김선생의  
부모는 여느와 달리 봉수기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아들을 찾아보  
러 땅에 발길을 돌렸던바, 그것은 원종변방에 가서 시계  
형편을 시찰할 겸 아이들로 다뤄다 돌보아주면서 옛 일과  
살 만 하다면 하나같이 안남은 아들을 따라 역시 원종에  
떠사하여 을세 획이었다. 그러나 을세는 계획보다 달리 되었다.

조선 국가 권속이 1929년 말까지는 극동에 대한 을세가 완  
화하여, 원종에 살고있는 한인들은 조선 지역이나 중국 지역을  
조선 영토내의 다른 지역과 같이 자유로이 출입하였기 때문  
에 별질이면, 특히 한성이나 죽성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을 찾아 가곤, 오곤 하였다, 그러나 1936년 부터는 소  
련 국경 봉쇄 전령이 발표되어, 월경하는 사람들은 물론  
감금하였는데, 지어는 수개월 동안씩 강제로 감금까지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김철선 선생의 부모들은 조선 원종에 떠나  
하여 을세에서 월해 동안 기다리다가 하는 수 없이 등  
산과 연길현에 떠사하여 갔다. 그곳에 가서도 길주에  
계실 때처럼 적은만한 처우를, 양방등을 차려 놓고 여러  
한인들의 동정을 받으며 외신있게 지내었다. 원종에 떠나  
하여온 김선생은 원제는 가족까지 찾아와 살림살이를 제때로  
차려야 하였다 김 선생은 장가는 일찍이 갔으나, 복지에 대한  
대정은 없어 20세 되는 때에야 찾아가기를 받게 되었다.  
김선생의 자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장가는 11세  
때 갔으나 복지와 동침하기는 18세가 되어서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김선생의 할아버지는 김선생이 자기 부친하고 동침하기 싫어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항상 손지를 붙여놓고 말하곤 했으며, 때로는 병신이 되고 한방에서 같이 자면 다침에 감초도 주고, 대추도 준다고 말했었다고 하며, 집에서 작살질하다가 무뎠던 파는 식혀 놓아도 어쨌든 책방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게 잘 지내던 김선생은 원릉 다반이란 곳에 와서 처음에는 한민 아이들의 학교를 조직하고 다 음부터는 그 학교가 자라서 초중 고중까지 되며, 그 학교 교장 직위에서 한민 아이 강제이주 - 즉 1937년까지 일하시었다. 김철원 선생의 일가가 길주에서 완전히 떠나자 선생의 부친 병원의 부모들은 제때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여, 그렇게 무뎠게 살던 가정의 완전히 일본놈들에게 의하여 파산 되고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4촌, 6촌도 남지 않았으며, 12년 친척들까지 하나 없어 1945년에 조선이 해방된 후 고향땅에 찾아갔겠으나 아무로 만날 수 없었다.

한민들에 대한 강제이주로 인하여 김철원 선생은 자기 가족과 같이 유로백 공화국 알지산주 사브리잡 구역 산탈 린 골노고에 도착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한민들에 대한 한양의 가장 심하던 시기, 강제 이주, 조선에서 들어왔으며, 상식이들은 한민 언더리 들은 조려 겹거 흑복, 한글어 교육 포치 이 모든 조선 정부의 만행은 김철원 선생으로 하여금 대단히 괴롭게 하였으며, 하루도 쉼 없이 밤을 자게 못하였었다. 그것은, 김선생은 조선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고등 상식 수준, 그것도 일본 중경 제대, 단 소련에 입국한 것이 1929년, 모든 조건이 피할 수 없는 불행의 조건들이었으나, 유연하게도 행복복한 죽 11명이 그를 돕아 선생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던 것이다.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선생 자신이 이런 유언장은 천만에 큰 기다리지 않았으며, 선생은 그 피할 수 없는 만행을 내일 같이 기다 리었다고 하였다.

선생의 살아계실시 희생담에 의하면, 한번은 선생을 그리게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1945년 5월 중순이었다. 소  
련 전체에서는 독소전쟁에서 대승리를 쟁취하고 영웅들이 무적  
패락을 늦기까지 모든사람은 있었고,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  
람을 위하여 울고 있는 가정도 있었다.

철원 선생은 어때에 안지산과 자호리장구역 산나리 끝노르에  
서 2년간 한글 교원을 하다가 강제타국 당한 이후 경제적으로 생  
활형편이 너무나 궁하여 다슈켄트주 굴리브한 끝노르에서 회장 일  
을 하고 있는 옛 원동에서 사귀은 친구 최영필 동지를 찾아와 1940  
년도 부터 끝노르 부회장 겸 생산부장 직부에서 비교적 경제적  
으로 잘 살고 있었으며 이웃의 인품도 사 위신이 여만 저만  
하였다 원래 김철원 선생은 성리가 결단성이 있고 원리가  
밝았기때문에 어리의 군중집단에서도 선생은 신속히 '양은천  
구들을 얻었으며' 위신있는 인물로 등용되었다.

몇몇극소수를 제외한 한인들이 경제적 불신임 인민으로 인  
정당하여 직접 전쟁관에는 초보되어나가지 않았으나 전  
쟁시기 부림이란 좋지 않았다. 모든 국가적 세금도 높았지  
만 알로는 자원적이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직항으로 모집하여  
해방지구에 발동하는 한편, 여류의복 징수, 탄크, 비행기  
건설을 위한 재정모집, 끝으로 자동화, 자전거까지 모  
집하는 어위에 한인들은 노동전선이란 명목하에 또한어  
날려오는 전선가가어서도, 소련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곳  
이 자치국에 가서 출근을 부설하는 등 일은 제 일선에서  
적과 대전하는 일에서 모치지 않았다.

한인들과 같은 처지에서 앓은 독일인, 체첸인, 갈리크인  
등등 만민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긴장한시기를  
지내보내고 조 순을 자유롭게 쉬며 살아보지 못하는게였다.

다슈켄트의 오월, 일년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 사방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벌써 어린 과일 - 체리, 살구 등이 익어가는  
하얀 땅 딸구는 대낮에가면서 장마당에 걸려있어 앓는  
한편 만가지 채소들을 활이 기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때에 이르러 과연 출양하였다.

바로 점심때였다. 기관 두명이 몰타한 지프차에 자동  
으로 부장한 호송병 한명과 함께 클리브한 꼴노르 관리위원  
회 앞에 도착하여 부회장 김철순어를 찾는것이였다.

이 말은 물론 관리위원회 회원들은 모두 다 낙담하였다,  
꼭 변함없는 1937-38 연식으로, 개개체가 한 언들을 무법  
적으로 잡아 갇혀가던 것이였다.

술식간에 꼴노르 관리위원회 앞마당에는 201명이 군중이 모  
여서 눈이 휘둥그레고 그 기관들의 거동을 살피는 한편 김철순  
선생도 등경간 어린 눈으로 쳐다보곤 하였다. 지프차를 돌려  
싸고 뚫어진 군중들에게 향하여 중좌급 전장을 단 기관을 말  
하기를 공화국 군사동원부의 명령에 의하여 김철순 씨는 군  
일 소련군대에 호모되어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결연하고  
있는 같은 금의 중좌 기관을 가르치면서 더불어 바로 공화국  
군사동원부 대령이라고 하였다. 다음 계속하여 군 군사동원  
부장 중좌는 말쑥하기를 지금 곧 집에 들어가 준비하여가  
지고 군 군사동원부에 가야 되며, 거기에서 투숙한다든  
금일로 모스크바로 출발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군 군사동  
원 부장은 철순 선생에게 말쑥하기를 집에가서 별 준비할  
것없이 자폭과 작별하고 나의 오별만 가지고 떠나면  
된다고 하면서 금일 모스크바로 떠날 최후는 벌써 마련  
되어 있기때문에 저녁 5시 까지 다슈켄트 역 전에  
도착하여 기차를 타야 된다고 하였다. 철순 선생이  
집에 도착하니 부인 봉숙이는 벌써 이 소식을 듣고 눈물에 잠  
겨 있었다



김철운 선생이 자기 아버지가 다려다준 가족과 만난후 1932년에  
원동변방 다반재에서 찍은 사진이다.

철운 선생이 군대에 별동대라는 소속은 삼시간에 전 골호크에  
편리, 철운 선생 집안에는 수십명의 골호크들이 몰려서  
정확한 내막은 모르고 각개 각의한 결투으로 자기들끼리 알화고  
있었다. 철운 선생은 잡은 시간에 아이들을 몰려 놓고 특별히  
16세 나는 알딸 진목이라고 부락하기로 내가 돌아올때까지  
어려움을 참으며 어린 동생들은 잘 걸우라고 부락하고 한에  
나기 여러 친구 동지들을 포용하면서 저프치어치에 몸을  
실고 약 10기로 레라 떨어져 있는 군 군사 중 원 부에 가게  
되었다. 철운 선생이 군사 중 원 부에 도착하자 골호크 관 리  
의 원 회 회 장 을 비 롯 하 여 10여명 간 부 들 과 김 철 운 선 생  
의 가 족 을 실 은 어 처 스 가 뒤 떨 어 와 서 고 있 었 다. 어 들 은  
군 경 하 는 철 운 동 지 와 작 별 하 는 것, 또 는 불 서 에 와 서  
모 서 간 일 어 어 라 나 진 실 연 과 견 역 하 기 위 하 여 서 도 이 까 지  
뒤 떨 어 왔 던 것 이 다.



1946년에 김철원 선생의 가족이 북한으로 나갈 시 딸인 진옥이도 출가하였기에 갈 수 없었다.  
 큰 군사 동원부에서 다시 한번 즉발한 철원 선생은 끌노르 관리위원회 회장이  
 이라 권회 성원회의 일을 대단히 고마웠다. 사실 끌노르에는 대연장 최영필  
 이 외에 박형선, 김철성, 김영철 등 동지들이 조선에까지 같이 나가 사업한  
 이 외에도 많은 사동무들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길이  
 여서 그랬는지, 또는 사랑하는 부인과 어린 아이들을 떨쳐 버린 가는 길이 너  
 무나 서슴해서인지 김철원 선생의 만류에서는 눈물어슬이 돌고 있었다.  
 이렇게 어두운 예고로 하여 허름사이에 원지개행하듯 받은 명령  
 에 따라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모스크바 총참모부 무력성 대위가 김  
 철원 선생을 가잔 역전에서 맞이하셨다. 김철원 선생은 자기를  
 맞으러 오를 큰란의 승용차를 타고 모자이크 기리로 향하여  
 가는 것은 징검다리에서 서둘러 글들을 읽어보고 알 수 있었으나 그것  
 이 외국으로 파견하는 정찰병 훈련소, 혹은 정찰병 훈련관 학교,  
 또 혹은 나치마노브 훈련관 학교에 갈 가는 길이라 하는 것은 알 수  
 없었다. 길목한 삼림속에 안전하게 숙파물해 있는 절기  
 의 건물을 밀음직하게 한 형이 만들어진 철천 등한이 8

말에 드문-드문 서있는것을 발견할수 있자, 그곳 한쪽  
 말에 가서 차를 얻치고 김선생의 적으만한 도량구를 잡으려는  
 같이 들어가라고 하였다. 사흘에 올라가 배를 누르니 어떤  
 근한 한 사람이 문을 열어 주는데였다. 집안에 들어가자 집은  
 사무실이 아니라 어떤 사택 모양으로 꾸며진 집이었다  
 한쪽편에는 취식, 식당 세현설로 갖춘 다른 편에는 사육  
 실에 적으만한 도서관 세현한 방도 있었고, 벽에는 여허까지  
 지르듯이 걸여 있는것을 볼수 있었다. 근한은 김선생과 말  
 을하시기를 하면서 선생의 습실이니 여기에서 유숙하시고  
 식사하시고 래일 아침 8시30분에 자기가 친히 선생의  
 모셔와 볼터이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다. 언저부터는  
 여기에서 유숙하시고 출근은 무력성 작전극에 하여야  
 될것이라고 하였다. 침부적으로 한 양일간 될수있는데도  
 외출을 상양하시고 외계와 전화 연락도 주야야 리겟다고  
 하였다. 김선생의 가정에는 근한 아내를 목격지까지 두사히  
 도착하였다는것을 특사를 파견하여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안행화 게시라고 말하느니라, 선생<sup>게</sup>전적으로 배속  
 된 흥신원 겸 연락병은 아무개라고 말하느니라 그 근한은  
 불러 잘봉사하여 드릴데 대하여 잘나 알았다.

김철은 선생은 평하여온 사택에서 식사로 잘하고, 따듯  
 한 물에 리역으로 잘가고 한잔으로 잘잠으나 대관절 무엇일  
 위하여 어떻게까지 추대하여 모스크바까지 모셔왔다는  
 것은 살던 무력성 작전극에 아침 9시에 도착한다음  
 에야 알게 되었다. 작전극 비밀서류들 가운데는 조  
 선, 일본 공국등지에서 임우된 각종 적황에 대한 제로  
 들어 열어기록된것이 무수하였다. 열부제론들은 큰어로  
 번역하였으나 아직 손대지 못한것이 많으며, 또 어떤것은

읽어보고 풀기는 하였으나 번역은 하지 못한 채 방치하여  
 풀적이 많았다. 무렵엔 작전국은 미당시에 벌써 대일전에  
 대한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철운 선생은 알지  
 못했다. 이 방대한 사업은 전후 무렵엔 무외복가 극비에  
 서 진행하였는데, 그때 일본 전쟁계획이 현실적으로 작성  
 되자면 무알 무천이 현지 정찰 자료를 토대로 되어, 작전  
 지도에 기입되어야만 하였을 것이다. 김철운 선생은 작전  
 국에서 대일 그 정찰 자료들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번역  
 하여 동은 자료들이 정확성을 무관, 검열, 정정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오개할 가량 복잡하고 책임적인 사업이  
 끝난 다음 철운 선생은 무렵엔 미당시에 미당시에 원종현감  
 제 일전선 사령부의 사령관이 되어 1945년 8월 4일  
 에 불라지호반도구에 도착하였는데 그 다음 소련군대와  
 같이 북한 평안도에 들어 서게 되었다. 이때에야 철운  
 선생은 작기가 온 여름 동안 여가를 사내의 헌여동은 일의  
 가치를 알게 되었는데, 그 후 당하여 무렵엔 간곡으로  
 육해 적기 습관으로 돌출된 것은 큰 영예 같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사진은 1945년 10월에 철운 선생이 자기 권력 누이동생과  
 태부를 찾고, 이전 자기 동지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앞줄 중심에 김철운 선생, 뒤줄 우편에 태부, 다음 누이동생이다.

소련군대가 평양에 8월 27일에 입성하자 평양시 소련군  
 경무부가 조직되었던 김철원 선생은 여기에서 책임적 번역관  
 으로 주력하였으리니, 군사청소는 소련군 대역였다. 이때의  
 평양의 정세는 대단히 복잡하였다. 아직 김일성부대도 조선에  
 들어가지 않고, 소련군 민전 사령부로 조직되지 않아, 소련  
 군이나, 일본군이나 군대에 대한 물자는 시경무부가 배정한다  
 친다 하여도 사회 연립단체에 대한 물자가 대대적으로 제기  
 되어 평양 정치적 환경이 복잡하였던 것이다. 그 전날까지도  
 일본 경찰서나, 헌병대가 한인들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에 천황 폐하가 항복한 이후로는 한인  
 들이 절대로 일본인들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인들이 조직한 자위대가 없었으나, 아직 연립기관이 없는  
 조건하에서 이 기관은 소련군대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환  
 경에서 무장하고 세력권력있는 군대는 소련군이었으나 그도 역  
 시 시민들에게 대하여 강탈, 강간, 음주 폭행등을 종종 하여  
 시 경무부에는 선소사건이 빈번하였다. 소련군 시내 입성후  
 약 2개월후, 임시연립위원회가 나오니, 소련군 25군단 내  
 민전 사령부가 조직된후 질서는 비록 완화하여 12의  
 일본 군대도 철거하여 갔으며 생활은 안정되었다.

김철원 선생은 시경무부에 1946년 2월까지 있다가 소  
 련 사령부 1명령에 따라 조동되어 25군단 민전 사  
 령부에 이동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전 지역에 대한, 호지개  
 혁 그 다음 계속하여 산업국유화 등 마주 중대한 정치  
 적 감바바야가 실행될시 책임적 번역관으로 제시  
 다가 1946년 말부터 연립군대 조직에 전적으로 복무  
 하였다. 북한 정부는 연립군대를 조직하려고 결심은 하였으나  
 군대 조직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군대 간부들이 전격  
 복귀되었다.



사진은 1954년 평권이후 찍은 철원 선생의 가족 사진.

대만에 북한 연인정부는 우선 군대조직전에 정치군관학교를 조직하여 소련교원 선생들의 방주로 간부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철원 선생은 이 정치군관학교에서 교원 일을 약 일년간 하시다가 연인군대가 조직된후 인족보위성 군사과학국 부국장 직위에 임명되어 군사과학을 전문화하면서 소련군대의 모든 규정들 - 내무규정, 위생규정, 대영규정, 전투규정, 야전규정 등을 번역 출판하는 사업을 전업지로 하였다.

김철원 선생은 북한에 들어서 권익동생과 애복을 만난다. 그들에게서 연길현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주소를 확인한다. 이 어 부모들을 평양에 모셔다 자기 가족과 결부시켰다. 근 20년간 서로 갈라져 있었으면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로 보지 못하여 애절하여 계시던 부모들은 아주 기뻐하였다. 그들에게는 애중적 반감음이 걸서워 (즉 아들 만나라, 조국당에 돌보게 된것) 자기들의 생애에 있어 막대한 시간까지 아주 행복스럽게 지내시다가 복원은 1962년에, 모친은 1967년에 돌아가셨다. 김철원의 누이동생은 15세 때에 집에서 그러나 빨라리산 부대로 도망간다고 역시 중국 동만에 건너가 한년 빨라리산 부대에서 복귀하다가 조국해방과 때를 같이 하여 자기 고향 길주에 돌아와 방직공장에서 책임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김철은 선생은 만나서 그 후 철은 선생의  
생애 낱어막까지 친절하게 연락하면서 살게 되었다.



우즈베크한 다슈켄트에 살고있는 김철은 선생의 딸 진옥이와 선옥이 딸과같이  
찍은 사진

우즈베크한 다슈켄트에 살고있는 김선생의 딸 형제는 부모들이  
떠나가신 후 한 동안 부모들을 그리워 외로워 지내면서 알은  
생활에 대한 자기충족은 더욱더 하게 하였다. 진옥이는 자  
기는 대학을 나오지 못하였으나 막을새가며 노력하여  
남포권을 대학을 나오게 하였으며 두 아들 형제를 다 대학  
을 나오게 하였다. 현재 막아들은 다직공화국 두산베  
시에서 알리리남 생산 연합 합작 기업소에서 지배인  
책임을 지내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에게는  
아들 형제가 역시 대학을 나와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둘째 아들 율로자 (막아들은 필릭스) 다슈켄트 큰 기업소에서  
책임직이나로 일하며 딸 형제를 아주 귀엽게 자리부근  
있다. 진옥의 동생 선옥이는 모스크바 의대를 다간한 후 한 동안

북한에 가서도 의사로 일하다가 모스크바에 돌아와 자기  
기능대로 일하다 3년전에 건강병으로 수속한후 현재에는  
형제제신 다유겐트에게 어사하여 와서 행복하게 자식들과같이  
살고 있다.



사진은 1980년 여름에 진옥이 자기 남편 허블라지리르와  
같이 유람선을 타고 볼가강에서 한달동안의 행복한 시간을 보냄.

김선생의 딸 진옥이는 소련이 붕괴되기전 1980년대 말기  
까지는 일년에 일개월씩 남편이 일하는 직장에서 무를 휴가  
휴양장을 받아가지고 볼가강 유역, 크림, 북캅카스, 발쨌코  
나이 변등지로 휴양갈수 있었다. 소련이 붕괴된 금일 현재  
에 와서 휴양소에는 다만 자분가를만 가서 휴양하는 곳이  
되고 보통엔원들에게는 대쉬스러원 회관만 남아 있다.

김철은 선생과 같이 독소전쟁의 공헌한 시기에 다유겐트는  
글리쓰만 글로호르에서 고독을 같이하다 조국해방의 반가운  
악을 가슴에 간직하고 북한에 가서 사업하던 박창선, 김  
필리프는 철적 추방되어 다유겐트에게 와서 작고되고,

굴리한 학교 교원 노릇하다 조선에 나간 김철원 선생은  
 1. 전사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김일성 북한지산부대의 군사규율로  
 비방 하였다는 자기 가짜문 등목의 밑근에 의하여 검거 총살  
 당하고, 북인라 악이들은 무르코한에 귀환한후 때때로  
 야간하고 현재에 평공업부 좌장까지하고 있다.

김철원 선생은 조국해방의 첫날부터, 조국당에 발을 들여드린  
 첫날부터, 또 전쟁시기 어려울 때나 또 흑허나 전후 사상검  
 초가 시작되면서 매일 수십명씩 철적, 추방, 검거가 계속되  
 었으며, 노련에서 온 많은 등목들이 노련에 돌아가고 있었  
 으나 김철원 선생만이 죽어도 자기 고향 땅에서 죽지, 또  
 살아도 자기 고향 땅에서 살지 다시는 타국에 안가겠다고  
 하시면서, 노련에서 온 전체 간부들은 자기 자식들을 전부다  
 노련에 유학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철원 선생은 자기 아들을  
 북한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국내정세가 북  
 장한 황명속에서 철원 선생은 자기가 맡은바 사업을 꾸준  
 히 하면서 인민군대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전부다 번역하고,  
 용연간 조국전쟁의 경험에 따라 많은것을 첨가, 삭제  
 하여 출판하시고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각종상학들에 열심  
 히 참가하여 군사과학에 대한 자기 상식을 제고 하였다.

김철원 선생을 가까이 알고 있는 많은 등목들은 김선생에게  
 게도 알지로 꼭 다른 노련간부들과 같이 사상검초의 돌이켜  
 폭풍은 당최 모리라는것을 예견하여 김선생을 사전에  
 감싸서 하는 등정감의 연사로 노련에 딸르 있고 싸투르  
 었으며, 노련군대에 그만한 공이 있으니 언제 다시 노련에  
 드라가 연금만 받고 살아도 호의 호식 할터이니 가짜고  
 하였으나, 철원 선생은 갈사람은 가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자기 조국 땅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거절하곤 하였다.  
 김철원 선생은 전전하고 진실한 조국의 아들이었다.



1982년에 김주기씨 공장에서 일하는 철원선생의 장남 연식이 자기 부인과 같이 촬영하였음. (당시 - 42세)

김철원 선생에게도 사상검토 후사병은 닥쳐보고야 알았다  
 사상검토 후사병 글씨는 누구에게나 들어 쓰이면, 조선독단에  
 '자주 권놈이 여기지, 날을 권놈이 여기라'는 말과 같이 그만이  
 었다. 그렇게 청백하고, 진정된 철원 선생처럼 네가 좋은  
 죄를 실도 하라, 허가이, 박창목이 하고 무슨 내놓은 얼어 있는지  
 내놓으라 등으로 - 소련과 가족주의, 사대주의, 소련식 관료주의,  
 고조주의, 왜 소련군의 규정은 행동이 없이 그대로 번역하였는가?  
 이것은 소련것을 과연 평가하는 경향이다 등으로 1960년 말  
 부터 1961년 정월 까지 2개월동안 피간장을 말려가 1억,  
 12억 일 같이 많은 죄를 내어 놓으라곤 써져 었다. 김선생은  
 거저 한가지 대답으로 자기는 천소파도 아니며 관료주의도  
 쓸것이 없다하러, 거저 죄를 질것이라고 분다면 소련것어 좋다고  
 인정할 죄밖에는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소련 군대 규정은 기본으로  
 삼다나니 그렇게 리였다고 하리라



사진은 철원 선생의 맏딸 진옥이 1984년에 블라강 유역 휴양소에서 휴양하고 있는 모습, 이때에 아버지는 벌써 세상 떠났다. 이 겨울 동안이나 끝까지 속히 하게 하던 당시 상점소 회력은 유령한 반소거두 김창만의 지도하에 아무런 죄도 없은 김철원 선생을, 책임 직무에서 철적식혀 자기 한생지 길죽로 내려 보내려, 당에서는 엄중 경고 처벌을 당 등록 카르네 기입할 것이 려. 이 겨울 여내로 평양의 산림집을 내는 동시에 대북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출학하여 같이 내려가도록 할 것 기어란 결정을 내리었다. 이것은 하북에 내려가 노동단련을 하라던 것이었다. 이후 김철원 선생의 가정 운영은 당시 상점소 회 결정 그대로였다. 길죽에 내려가신 김선생은 농촌일터라곤 어리서 때 불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쑥 그대로 훈장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일 못하는 북양가족과 같이 아이들 뒤를 따라 다니려 도움 일어나 하였기 때문에 북양가족 배급 - 매월 200 그람의 잡곡과 쌀 절반씩 배급을 받았다. 아이들 삼행제로 북모들라 같이 농촌에 나가 막로등일은 하였다 허준들은 그대로 자기가 살 남이들 다 살면서 달아 가구나 파어들일어 마작 남치하고 불삼하였다. 1982년에 맏어막 꼬내어가 그 당시 남이 37 세였던 바 스 톨리에서

의하면, 형들은 부모들과 같이 농촌에 내려온 어족로공  
 부를 궁핍하고 협동조합에의 막일을 하라 맞벌이만 하면  
 길국 기씨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였으며 자기는 둘씩 형과  
 같이 부모들이 돌아가신 후 맞벌이 집에서의 같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맞벌이는 폐기행에 걸려고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진옥이에게 부탁하기를 폐기  
 행에 쓰는 폐기행의 약을 좀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진옥이는 그 약을 구하여 발송하였으나 우편국에서  
 외국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아주 높아서 소포를 찾을 수  
 없으니 앞으로는 어쨌든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  
 평지 거제도 아주 두절되며, 벌써 십여년간 증언하였  
 던 노석로 말하였다.

나의 최후의 원망은 조국이 신속히 통일되며, 어린  
 들이 마음대로 내왕하도록 하였으면, 내 마음대로  
 북한 길국에 가서 나의 남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후으로 보아주면 좋겠고, 아버지, 어머니  
 분지에 제나 지내고 잘어나 하였으면, 그 원망이 다  
 풀려질 것 같다.

김철현의 딸 김진옥의 재회에  
 의하여 감람을 씀.

24/11-1996.